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출 분석은 국어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수험생은 이를 단순한 문제 풀이 수준에서 끝내곤 한다. 진정한 기출 분석이란 정오 판단을 넘어 지문의 논리 구조를 스스로 해체해 보는 과정이다. 지문 속 정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파악하고, 평가원이 정답과 오답 선지를 구성하는 방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이 반복될 때 비로소 어떤 낯선 지문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핵심을 꿰뚫는 실력이 완성된다.

진정한 기출 분석을 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지문 내용의 세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실전 문제 풀이 단계에서는 효율성을 위해 핵심 정보 위주로 읽기 마련이고 또 그렇게 읽어야 하지만, 분석 단계와 학습 단계에서는 이에 더해 세부 정보를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파헤쳐야 한다.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러한 밀도 높은 독해 경험이 축적된다면 추후 고난도 지문을 마주할 때 흔들림 없이 빠르게 핵심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선지의 정오 판단 근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실전에서는 효율을 위해 소거법이나 대략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쉽지만, 분석 단계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국어 학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모든 선지의 근거를 지문 내에서 명확히 규명하고, 그 사고 과정을 다른 문항에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야만 비로소 고난도 문항의 복잡한 선지 구성 원리를 꿰뚫는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출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①스스로 과외하기라는 방법이 있다. 평가원 지문을 정독하며 낱을 가르치듯 세부 내용까지 하나하나 설명하며 지문의 논리 구조를 익혀보고, 핵심 선지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직접 찾아 답의 이유를 확실히 밝히는 방법이다. 이런 식의 입체적인 분석이 반복될 때 비로소 독해력이 단단해지고, 어려운 문제를 마주해도 수월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해진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출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평가원이 선지를 구성하는 원리를 체화하는 것이 있다.
- ② 실전 문제 풀이와 달리 학습 단계에서는 지문의 세부 내용까지 놓치지 않고 파헤치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③ 모든 선지의 정오 판단 근거를 지문에서 명확히 찾는 훈련은 독해력을 길러줄 수 있다.
- ④ ‘스스로 과외하기’를 통해 지문을 설명해보는 과정은 독해의 밀도를 높이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교정해준다.
- ⑤ 분석 단계와는 달리 실전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문의 핵심 정보만 골라 읽으며 요약하는 방법이다.
- ② 선지의 근거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집중하는 과정이다.
- ③ 선지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근거를 찾아보는 방식이다.
- ④ 지문의 논리 구조를 해체하고 해설지의 설명대로 근거를 찾아보는 방식이다.
- ⑤ 선지의 근거를 하나하나 달아보는 과정을 통해 지문의 논리 구조를 익히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인지 심리학의 ‘바람직한 어려움’ 이론에 따르면, 학습 과정에서 정보 처리가 지나치게 쉽고 유창하게 일어날 경우, 학습자는 해당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반면, 의도적으로 인지적 부하를 높여 정보를 재구성하거나 타인에게 설명하는 ‘생성 학습’을 거치면, 단기적인 수행 속도는 느려질지라도 장기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핵심 파악의 정교함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또한, ‘인지적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 인간의 뇌는 실전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세부 정보를 생략하고 스키마 중심의 거시적 판단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다.

- ① 분석 단계에서 세부 정보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과정은 ‘바람직한 어려움’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여,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창성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으로 볼 수 있다.
- ② ‘스스로 과외하기’는 정보를 해설지 탐독보다 인지적 부하가 높으나 독해의 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 ③ 핵심 정보 위주로 읽는 것은 <보기>의 ‘인지적 경제성’을 따른 행위나, 이러한 경제성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석 단계에서의 밀도 높은 독해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 ④ 분석 단계에서 모든 선지의 근거를 명확히 규명하는 정교한 훈련은, 실전 상황에서 뇌가 거시적 판단을 내릴 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돕는 토대가 된다.
- ⑤ ‘인지적 경제성’에 따라 고난도 지문일수록 핵심 정보에만 집중해야 하므로, 분석 단계에서 효율적인 스키마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어려움’을 실천하는 길이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시경제 연구에서는 연구 주체가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각 행위 주체의 상황을 설정하고 알맞게 배치한 후 행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인간 행동을 물리적 인과관계보다 믿음과 욕구의 산물로 설명하려는 통속 심리학적 사고에 기반한다. 통속 심리학은 지향성과 도구적 합리성을 전제한다. 연구자가 타인의 욕구를 설정하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타인 역시 무언가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속 심리학의 주장은 지향성 및 도구적 합리성에 따른 설명이 귀납적으로 성공해 왔고, 인간 인지 구조와 기본 욕구 체계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근거로 한다.

처칠랜드에 따르면 통속 심리학과 그 관념은 제거되어야 한다. 다른 통속 이론이 실패한 이론으로 밝혀져 왔으므로 통속 심리학 역시 실패한 이론으로 밝혀질 것이라는 귀납 추론이 가능하다. 통속 심리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설명 방식에서 진전된 바가 없고 정상 성인의 각성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동만 설명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통속 이론의 경우처럼 제한된 합리성 같은 보조 가설을 덧붙인다는 사실은 해당 추론을 강화한다. 인간적 보편성에 대해서는 주체의 두뇌 상태에 대응하는 ㉠ 신경 상태 공간의 궤적으로 마음을 설명해야 하며 그 패턴을 분석하면 마음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예측할 수 있지만, 마음에 대한 보편적 자연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처칠랜드는 주장한다. 신경 상태 공간은 개인의 뇌에 실재하는 구성 요소와 물리적 수치를 좌표로 나타낸 것이다.

지향성과 도구적 합리성을 수용하더라도 ㉡ 연구자가 설정한 욕구가 실제 행위 주체 내면과 상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데닛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복잡해서 물리적으로 환원할 수 없지만, 연구자는 대상을 믿음과 욕구를 가진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는 지향적 태도를 취하여 행동을 예상할 수 있다. 가정된 욕구는 연구자의 주관과 연결되어야 개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데이비슨에 따르면 개별 심리 사건은 개별 두뇌 사건과 동일하게 실재하고 심리적 유형과 물리적 유형을 연결하는 자연법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믿음이나 욕구 같은 심리학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욕구는 심리적 전체론에 따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속성이고 지향성과 합리성은 해석 틀로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주관적 기준을 대상에 투영하기에 욕구는 발견되지 않고 구성된다.

(나)

제리 포더는 타인의 욕구라고 상정된 내용이 대상의 내면에 있는 심리적 실체와 일치할 수 있으며 과학적 엄밀성을 위해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더에 따르면 믿음과 욕구는 뇌에 물리적으로 구현되어 행동을 유발하는 효력을 지니는 정신적 표상이다. 마음은 사고의 언어라는 내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문장의 형태로 기록된 욕구를 발견할 수 있다. 포더에 따르면 자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이유는 단어에 대응하는 선천적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서로 다른 자연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서로 소통 가능한 이유는 사고의 언어가 보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고의 언어 가설은 인간의 뇌 속에 타고난 선천적 내적 언어 시스템을 전제한다. 욕망을 에너지이자 본능으로 보아 언어나 논리와 대립적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프로이트는 정신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을 구분하는 점에서 포더와 의견을 같이하지만, 본능을 신체의 항상성 회복을 위한 요구를 정신 자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며 이를 항상성의 회복을 향한 에로스와 긴장의 해소를 향한 타나토스로 나눈다. 리비도는 에로스가 사용할 에너지로, 정신은 이를 자아나 타자에 적절히 배출하거나 승화하지 않으면 억압이나 신경증을 겪는다. 한편 타나토스는 그대로 두면 자기파괴적 결과를 일으키므로 정신은 타나토스의 대상을 타자로 ㉢ 돌린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 정신은 이드, 자아, 초자아로 구성된다. 이드는 본능적 충동으로 가득 차 쾌락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에너지 방출을 요구하고, 자아는 아이가 자신과 타자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발달 단계에서 형성되어 현실 원칙에 따라 쾌락을 추구한다. 초자아는 사회적 규범의 내면화로 형성되어 충동을 검열하고 제한한다. 초자아의 영향이 강화될수록 자아는 죄책감을 피하려 본능적 욕구를 무의식으로 억압하는데, 이에 리비도의 퇴행이 일어나 인간은 신경증을 겪게 된다. 이드뿐 아니라 자아도 포더가 주장하는 사고의 언어를 가질 수 없다. 이드가 현실에 맞게 변형된 것이 자아이며, 자아는 이드의 리비도를 변형하여 사용하기에 생각의 동력이 비합리적이고 본능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가)는 통속 심리학의 범위를 제시했고, (나)는 본능의 범위에 대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소개했다.
- ㉡ (가)는 통속 심리학의 유효성에 대한, (나)는 마음이 실재하는 방식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했다.
- ㉢ (가)는 마음을 인정하는 연구 방법론의 대체 방안을, (나)는 자아의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 (가)는 설정된 욕구와 주체의 내면이 일치해야 함을, (나)는 정신이 선천적 개념에 바탕을 둬 입증했다.
- ㉤ (가)는 처칠랜드의 이론을 소개했고, (나)는 포더의 가설을 바탕으로 프로이트 이론의 비논리성을 비판했다.

5. (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속 심리학은 데닛과 달리 지향성이 입증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 ② 마음에 대한 보편적 자연법칙은 심리적 유형과 물리적 유형의 관계를 다루어야 한다.
- ③ 데닛과 데이비슨은 모두 도구적 합리성이 욕구의 구성이라는 해석 대상을 낳는다고 본다.
- ④ 처칠랜드에 따르면 개인의 인지 구조를 이용한 경험적 예측 성공은 모든 인간으로 확장될 수 없다.
- ⑤ 처칠랜드에 따르면 통속 심리학은 귀납 추론의 적용 영역과 그 영역에서 내려야 할 결론을 모두 오해하고 있다.

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이 물리적 상태로 환원 가능한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 ② ㉠의 분석은 ㉡을 관념적 대상으로 분류하는 이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③ 프로이트에 따르면 ㉠과 ㉡의 영역은 구분되며, 그 관련성은 본능에 근거한다.
- ④ 프로이트는 ㉡이 기본적으로 ㉠과 같은 해석의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볼 것이다.
- ⑤ ㉡에 대한 프로이트의 견해가 옳다면 ㉠을 이용하여 신경증 발생 확률이 높은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처칠랜드는 미시경제 연구에서 ㉢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 포더는 예측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연구에서 ㉢을 수용할 수 있다.

㉢. 프로이트는 ㉢의 수용 여부가 결과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처음 투약했을 때 연구자는 그가 쾌락을 위해 약물을 선택했다고 가정하여 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심하게 중독된 후 반복적 투약을 합리적 선택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을: 그렇지 않아. 본능이 자아의 통제를 벗어나 발생한 사건을 행위 주체가 수단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합리적이라고 보면 자아의 방어 기제나 합리화에 현혹될 위험이 있어.

갑: 네 주장에 따르면 합리성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어려워. 인간의 모든 행동의 기저에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통제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합리적이라 규정하면 안 돼.

- ① 통속 심리학은 합리성의 범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므로, 을의 주장에 대해 갑과 같이 반박하지는 않겠군.
- ② 처칠랜드는 갑이 지향성을 사용하는 방법이 옳은 이론이라고 보지 않겠지만, 유용한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겠군.
- ③ 포더는 모든 행동의 기저에 사고의 언어로 쓰인 욕구가 실재한다고 보므로, 합리성의 범위 문제에 대한 갑의 주장에 동의하겠군.
- ④ 데닛은 갑이 행위를 목표와 수단의 관계로 설명한 내용이 유용한 예측을 낳는다면, 합리성의 규정에 대한 갑의 주장에 동참하겠군.
- ⑤ 데이비드슨은 일관성 있는 해석을 위해 대상을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해야 한다고 보므로, 정당성의 여지를 두는 갑을 옹호하겠군.

9. 문맥상 ㉣와 의미가 같은 것은?

- ① 서류 결재는 내일로 돌린다.
- ② 그는 젊다고 몸을 함부로 돌린다.
- ③ 요건을 말하지 않고 말만 돌린다.
- ④ 친구들이 나만 따로 돌린다고 생각한다.
- ⑤ 그녀는 주위의 사소한 일에 관심을 돌린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맹이론은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이 외부의 위협과 권력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맺는 협력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틀이다. 국가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생존과 편익 등의 보상을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거나 견제하며,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국제 질서와 권력 구도의 변화를 이해하는 핵심 단서로서 기능한다.

동맹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세력균형론은 국제관계에서 특정 국가가 압도적으로 강대해져 패권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은 자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적 균형 전략이나 동맹·협력을 통한 외적 균형 전략을 구사한다고 본다. 또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을 '체제 속에서의 생존'으로 규정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상호 견제 전략을 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편승이론은 세력균형론이 현실, 특히 약소국의 처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국가가 장기적 균형보다는 단기적 생존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들로서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선택에 의존하는 편승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즉 편승이론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견제하기보다는 그 편에 서서 생존 보장이나 이익 확보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방편에 그치지 않고, 강대국의 패권적 행위에 편승하여 경제적·영토적 보상을 얻으려는 기회주의적 계산이자,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성과를 노리는 전략적 행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월트는 편승이론이 단기적 안전만 강조하고 장기적 위험을 간과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강대국에 편승하면 당장은 안전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위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이 중 버릴 위험은 강대국이 비용 부담이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로 인해 동맹국을 버릴 가능성을 뜻한다. 또한 끝없는 위험은 강대국의 공세적 행동이나 모험주의에 휘말려 동맹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동반자로 끌려 들어가 역으로 보복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결국 월트에게 있어 편승이론은 단기적 이익을 좇기 위해 장기적인 위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위의 이론들의 한계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기존 세력균형론이 가진 단점을 보완해 비판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월트는 위협 균형론이라는 이론을 제시한다. 그는 국가가 택하는 균형 전략의 기준이 단순한 국력의 크기가 아니라, 각 국가가 체감하는 '위험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는 인구·경제력·군사력 등 총체적 힘뿐 아니라, 지리적 근접성, 상대국의 공격 능력, 그리고 공격 의도와 같은 위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맹을 형성하거나 자국의 경제력을 강화하려 노력 한다는 것이다. 위험 요소가 높은 대상을 견제하며 안보와 경제적 이익 등의 편익을 얻기 위해 국가들은 서로 동맹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견제할 수 있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편승이론은 국가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가정하에 약소국이 강대국에 편승하는 선택을 한다고 주장한다.
- ② 위협균형론은 국가들이 인접한 공격 의도를 지닌 국가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동맹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③ 편승이론은 국가가 단기적 성과를 포기하고 강대국에 편승해 안정을 노리는 전략적 행위를 실행한다고 주장한다.
- ④ 위협균형론은 특정 국가가 압도적으로 강대해져 패권을 추구할 경우 이에 대항하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⑤ 편승이론은 위협균형론과 같이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은 여러 가지 보상을 얻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거나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력균형론은 편승이론과 달리 국가를 생존과 편익 등의 보상을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거나 견제하는 존재라고 보는 한계가 있다.
- ② 편승이론이 제시하는 선택 방안은 강대국 간의 분쟁 속 원치 않는 내적균형 전략을 취하게 되는 이중 버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③ 편승이론은 세력균형론과 달리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의 합리적 행동 방안을 하나로 한정하여 제시해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④ 세력균형론과 편승이론은 모두 추후 위협균형론의 숙고를 통해 자신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 ⑤ 세력균형론과 편승이론은 모두 약소국을 장기적 생존을 고려하지 않는 존재로 가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12. 윗글을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대하자, 유럽의 국가들은 미국 등의 다른 강대국과 협력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결성하여 소련의 힘을 견제하고자 했다. 반면 동유럽의 여러 국가는 소련의 압박과 패권적 행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피하기 위해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에 의해 계속적인 압박에 위협을 느낀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NATO에 가입 신청을 넣었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군사적 보복을 받았다.

- ① 소련의 힘을 견제하고자 NATO를 결성한 것은 강대국의 패권 추구를 막고자 하는 세력균형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겠군.
- ② NATO의 결성은 당장의 단기적 생존을 얻기 위하여 미국의 선택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편승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겠군.
- ③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소련의 위협에 굴복하여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참여한 것은 편승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겠군.
- ④ 러시아의 계속적인 압박에 위협을 받자 NATO에 가입 신청을 넣은 우크라이나의 선택은 위협균형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겠군.
- ⑤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 신청을 넣자 즉각적인 보복을 받았다는 것은 끌려감 보복 현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군.

13.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 연극은 주인공의 독백으로 끝을 맺었다.
- ② 그는 상자에 끈을 여러 겹으로 두르고 매듭을 맺었다.
- ③ 그는 점점 평정을 되찾은 듯 차분하게 결론을 맺듯 말했다.
- ④ 그들은 친구 소개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 ⑤ 그녀는 목이 메어서 말끝을 못 맺고 울음을 터트렸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행기에 사용되는 금속 재료는 사용 중 다양한 하중을 받는 상황에서 비가역적 변형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부품으로 가공되어 사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작은 힘을 받는 금속은 응력이 변형률과 탄성계수에 비례한다는 후크의 법칙을 따라 탄성 변형을 일으킨다. 이때 응력은 동질적인 물체가 단위 면적당 받는 수직 하중을, 변형률은 수직 응력으로 인해 길이 방향으로 변형된 정도를 원래 길이로 나눈 값을 가리킨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형된 금속에는 비가역적인 소성변형이 발생한다. 금속을 구성하는 원자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화하면서 원자들 간의 결합이 늘어나는 대신 기존의 결합 일부가 끊기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성변형을 일으키는 힘을 가한 후 늘어난 새로운 결합에 탄성 복원력이 작용하여 표면이 튀어나오는 회복 현상이 일어난다. 소성변형이 일어난 부품은 단단해져 변형을 위해 더 큰 하중을 필요로 하는 대신 소성변형의 여유 능력이 연성을 상실한다. 새로운 원자 결합이 변형 이전과 같은 결합력을 가지지만, 금속 원자들의 이동을 방해하는 결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상온에서 금속은 파괴까지의 변형 정도에 따라 파괴 양상이 구분된다. 파괴 이전에 소성변형이 많이 발생하는 금속 부품은 변형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부품에 적절한 힘을 가하는 것은 부품에 에너지를 투입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힘을 제거하면 부품이 탄성 변형의 반대 과정인 탄성 회복을 거치며 그보다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 그런데 부품을 두 조각으로 나뉘도록 계속해서 힘을 가하면 부품이 파괴될 때까지 흡수하는 총 에너지만큼이 사용된다.

소성변형에 따른 연성 파괴는 ㉡ 네킹이라는 징후를 가진다. 하중으로부터의 에너지를 부품 전체에 분산하기 어렵게 되면 그 에너지가 약한 지점에 집중되며 해당 지점에 가해지는 응력을 계산하는 데 쓰이는 유효 단면적이 감소한다. 부품 전체가 버틸 수 있는 총 하중 역시 줄어들지만 유효 단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단면 내에 결합이 발생하고 전파되며 파괴에 이르게 된다. 반면 취성 파괴는 소성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갑작스럽게 발생한다. 이는 부품의 구성 물질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 부품의 표면이나 내부에 위치한 결합이 길고 뾰족한 경우에는, 원자 간 결합력이 크기 때문에 소성변형을 일으키는 물질로도 그 결합을 끊으며 발생할 수 있다.

최초의 상업용 제트기인 코멧 호는 탄성 변형의 영역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되었다. 고고도 비행에 의해 기내 압력을 높이면 동체는 밖으로 팽창하려는 응력을 받는다. 이때 동체가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며 탄성 에너지가 저장되고, 압력이 해제되면 방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각형 창문에 응력이 집중되어 동체 전체가 탄성 비행의 영역에서 운용된 것과 달리, 비행마다 소성변형이 일어났다. 비행이 반복되자 창문 모서리의 금속이 단단해지며 연성을 잃고 파괴되었다. 이후의 파괴는 수직 방향, 길이 방향 모두의 힘을 버티던 구조가 사라지자 비행기의 균형을 잡으려는 꼬리날개가 동체에 가하는 하중에 의해 분리되면서 동체 전체가 붕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14. 앞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후크의 법칙은 응력과 변형률의 비례를 설명한다.
- ② 탄성계수가 낮은 부품은 탄성 변형을 일으키기 어렵다.
- ③ 비행기의 금속 부품은 탄성 변형만 일어나도록 설계된다.
- ④ 소성변형을 일으키는 물질은 연성 파괴를 일으킬 때 균열 전파 속도가 빠르다.
- ⑤ 금속이 파괴되는 변형률이 항상 일정하다면, 그 표면이 변형 전보다 튀어나올 수 없다.

1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탄성 회복이 작용하기에 너무 강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 ② 탄성 회복은 부품이 적절하게 변형되며 일어나기 때문이다.
- ③ 탄성 회복이 일어나다가 추가 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 ④ 탄성 회복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상쇄되기 때문이다.
- ⑤ 탄성 회복은 부품이 파괴되면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소성변형된 부품의 다른 위치에 변형을 가해 일어날 수 있다.
- ② ㉡는 소성변형된 부품의 결함이 많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 ③ ㉠과 ㉡는 모두, 결함의 위치로 발생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 ④ ㉠과 ㉡는 모두, 부품의 구성 물질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
- ⑤ ㉠과 ㉡는 모두, 응력과 거시적 면적으로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코멧 호]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비행기의 동체는 원통으로 근사할 수 있다. 통상 상태에서 표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기내 압력과 기압 차에 의해 원주 응력이, 이와 관련하여 동체의 양쪽 끝을 당기는 축 응력이 작용한다. 원통에 구멍이 뚫리면 응력은 구멍을 우회해야 하는데, 근처의 둔한 면에 도달하면 정체되고 뾰족한 부분에 집중되면 강한 하중을 가한다.

- ① 코멧 호의 창문이 파괴되기 전, 축 응력은 동체와 평행하므로 변형을 일으키지 않겠군.
- ② 코멧 호의 창문이 실제와 달리 원형이고 파괴되었다면, 원주 응력이 계속 정체되었군.
- ③ 코멧 호의 파괴된 창문이 동체 중앙에 있었다면, 축 응력이 이후 파괴의 주된 원인이겠군.
- ④ 코멧 호의 창문이 파괴된 직후, 축 응력은 꼬리날개가 가하는 하중과 달리 감소하겠군.
- ⑤ 코멧 호의 동체가 길이 방향으로 늘어난 것은, 축 응력이 원주 응력보다 강하기 때문이겠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때는 ㉠정묘년 정월 십오 일이라. 온 조정의 신하들이 다 하례할 때에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전(年前)에 짐이 조웅을 보니 인재가 거룩하고 충효가 거룩하매 본보기가 될 만하니 태자를 위하여 데려다가 짐의 곁에 두고 서동(書童)을 삼아 국사를 익히게 하고자 하나니 경들의 소견은 어떠한가?”

여러 신하가 다 묵묵하되 이두병이 아뢰기를,

“나라의 법이 각별히 엄하오니 벼슬 없는 여염집 아이를 이유 없이 조정에 들은 잘못된 줄로 아옵니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충효의 인재를 취함이라. 어찌 아무런 이유 없이 취하려 하겠는가.”

두병이 다시 아뢰기를,

“인재를 보려 하시면 장안을 두고 이르더라도 조웅보다 열배나 더한 충효의 인재가 백여 인이요, 조웅 같은 이는 수레에 싣고 말[차]로 그 양을 헤아릴 정도로 많습니니다.”

황제께서 윤허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회답이 없는지라. 승상이 시종대(侍從臺)에 나와 관원들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후에 만일 **조웅을 위하여 천거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받으리라.**”

하니, 백관이 누군들 겁내지 아니하리오. 이즈음에 왕 부인과 조웅이 이 말을 듣고 부인은 못내 두려워하고 응은 분기등등하더라. 천운이 불행하여 황제께서 우연히 건강이 편하지 않으시더니 ㉡열흘이 지나도 조금도 차도가 없고 점점 병이 깊어지니,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하늘에 빌어 병이 나아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랐지만 소인배들의 조정이라 회복을 어찌 기대하리오.

㉢정묘년 삼월 삼 일에 황제께서 붕어(崩御)하시니 태자의 애통하심과 만인의 곡성이 천지에 사무치고 왕 부인 모자는 더욱 망극하더라. 어느 사이에 국법과 권세가 이두병의 말대로 돌아가니, 백성이 망국의 행동을 일삼고 산중으로 피란하더라. 이때에 관원들이 엄히 예의를 갖추어 ㉣사월 사 일에 황제를 서릉(西陵)에 안장하였다. 하루는 관원들이 노소 없이 시종대에 모여 국사를 의논할 때 이두병이 역모에 뜻을 두고 옥새를 도모코자 하니 조정 백관 중에 그 말을 좇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지라. ㉤시월 십삼 일은 황제의 생일이라. 모든 관원이 종일토록 국사를 의논할 때 이두병이 물어 말하기를,

“이제 태자의 나이는 팔 세라. 국사는 매우 중요한데, 팔 세 태자의 즉위는 일이 매우 위태한지라. 법령이 점점 쇠하고 나라가 위태할 지경이면 그대들은 어찌하려 하느뇨?”

여러 신하가 일시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A] “천하는 누구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며, 조정은 십대(十代)의 조정이 아니라. 이제 어찌 팔 세 태자에게 제위를 전하리오. 또한 황제 붕어하실 때 승상과 협정하라 하신 유언이 있었지만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고 백성에게는 두 하늘이 없다 하였으니 어찌 또 다른 왕을 두리이까?”

여러 신하의 말이 모두 한 입에서 나온 듯하더라.

“이제 국사를 폐한 지가 여러 날이라. 앞드려 빌건대 승상은

전일의 과업을 전수하여 옥새를 받으시고 제위를 이으셔서, 조정과 민간의 모든 사람이 실망하며 탄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며, 모든 대소 관원이 일시에 당 아래 땅에 엎드려 사배하니 그 위엄이 서릿발 같은지라.

[중략 줄거리] 조웅은 송나라를 떠난 후 여러 도사를 만나 무예를 닦고 힘을 기른다. 이후, 조웅은 의병 대원수가 되어 이두병의 군사를 무찌르고, 이두병에게 항복하라는 격서를 보낸 뒤 그를 찾아가간다.

이때 황성 백성들이 조 원수가 온단 말을 듣고 즐거하여 마중 나오니 그 수를 가히 세지 못할지라. 또 이두병을 잡아 온다는 말을 듣고 장안의 백성들이 노소 없이 다 즐겨 말하기를, “극악한 이두병이 형세만 믿고 차장 천자라 하여 천지가 무궁하기를 바라더니 일시를 보존하지 못하고 어이 그리 단명하는고? 하늘이 통찰하여 네 죄를 아시고, 무지한 백성들도 네 옥신을 원하거나 착하고 빛나도다. 일월 같은 조 원수를 보니 도탄 중에 든 백성들이 단비를 만나도다. 사방으로 흩어진 충신들도 소식을 알았던가. 백발 노소 장안 백성들이, 구경 가자스라!”

하고 무수한 백성들이 다투어 구경하더라. 원수가 팔십만 대병을 몰아 황성을 짓쳐 들어오니 황성 백성들이 남녀노소 없이 길을 막고 나와 원수께 치하하며 말하기를,

“장하고 장하도다. 어디를 가셨다가 이제야 오십니까? 천우 신조로 대승이 회복되도다.”

하고 무수히 하례하거늘 원수가 위로하기를,

“살아서 너희를 다시 보니 반감기 헤아릴 수 없도다.”

하시며 행군을 재촉하여 수일 만에 황자강에 이르니 강산 풍경이 예와 같은지라. 문득 옛일을 생각하니 슬픈 생각을 금치 못하고 사공을 재촉하여 강을 건넜더니 황성관 어귀에 조정 백관이 이두병과 이관 등을 수레 위에 높이 싣고 원수의 군행을 기다리다가 원수가 오심을 보고 나와 와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B] “소인 등은 임금을 속였음이라. 죽어 마땅하나 그때를 당하여서 도망치지 못하였고 또 두병의 형세를 당하지 못하여 참여했으나 매일 송 태자를 생각하오니 가슴 속이 막혀 한순간인들 온전하리오. 천행으로 원수가 이리 오신다 하옵에 범죄 불고하고 두병의 부자를 결박하여 바치니 앞드려 바라건대 원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널리 용서해 주소서. 소인들의 잔명을 보전하여 주옵심을 바라나이다.”

하며 애걸하거늘 원수가 이두병을 보니 분기충천한지라. 진을 머무르게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두병을 붙잡아 오라 하시니, 군사가 일시에 달려들어 두병을 포승으로 묶어 진중에 끌러니 원수가 호령하여 말하기를,

“두병아, 네 낫을 들어 나를 보라. 네 죄를 생각하니 죽어도 아깝지 않음이라. 태자를 귀양살이 보내고 사약을 내리니 그 죄가 어떠한가, 또 나를 잡으려고 장졸을 보내어 시절을 요란케 하니 무슨 일이뇨? 사실대로 똑바로 아뢰어라.”

하시니 좌우의 무사가 달려들어 창검으로 찌르며 바빠 아뢰라 하는 소리 천지를 진동하는지라. 이두병이 겨우 진정하여 아뢰

되,
 “나의 조정의 신하들은 성품이 비길 바 없이 음험하고 흉악한 신하들이라. 죄를 알고 나의 부자를 잡아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하리오. 원수의 처분대로 하라.”
 하니 원수가 더욱 크게 성내어 무사를 호령하여 문초하라 하니 무사들이 일시에 소리하고 달려들어 창검으로 찌르니 두병이 견디지 못하더라.
 - 작자 미상, 「조웅전(趙雄傳)」 -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 부인은 황제가 죽은 후 태자를 산중으로 피신시켰다.
- ② 관원들은 엄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황제의 장례를 치렀다.
- ③ 황제는 조웅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그를 등용하고자 했다.
- ④ 조웅은 이두병의 죄목을 나열하며 그의 잘못을 심문했다.
- ⑤ 이두병은 어린 태자의 즉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1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사건으로 인해 ㉡ 동안 황제의 신상에 변화가 생긴다.
- ② ㉠과 ㉢ 사이에 대립하던 신하들이 ㉣의 사건을 통해 화합하게 된다.
- ③ ㉠에 황제가 결정을 보류했던 일이 ㉣에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 ④ ㉡ 동안 드러난 백성들의 소망이 ㉢의 사건으로 실현된다.
- ⑤ ㉢의 황제의 죽음 이후, 제위에 대한 논의가 ㉣에 마무리된다.

2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에 대한 원망을, [B]는 상대에 대한 기대를 불음의 방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다른 이의 조언을 바탕으로, [B]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 ③ [A]는 현재의 상황을 명분으로 들어, [B]는 과거의 상황을 해명하며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 상대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일반적으로 영웅 소설에서 악인은 주인공에게 시련을 가하고 반란을 도모해 권력을 쟁취한다. 악인에게 원한을 갖게 된 주인공은 시련을 극복하며 성장하게 되고 결국 악인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복수를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악인의 권력에 움츠러 있던 백성들 또한 주인공을 지지하며 악인에게 맞서게 되고, 주인공의 개인적 원한에 대한 복수는 집단의 고통을 해결하고 대의명분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게 된다.

- ① ‘조웅을 위하여 천거하는 자’는 ‘죄를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이두병은 조웅의 천거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주인공에게 시련을 가하는 악인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역모에 뜻을 두고 옥새를 도모코자’ 하는 이두병의 모습은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정치적 반란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남녀노소 없이 길을 막고 나와 원수께 치하’하는 모습은 이두병의 통치에 고통을 받던 백성들이 조웅의 등장을 반긴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행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이두병과 이관 등을 수레 위에 높이 싣고’ 조웅을 기다리는 신하들의 행동은 주인공을 대신해 원한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악인에 대한 개인적 복수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조웅이 ‘태자를 귀양살이 보’낸 이두병을 심문하는 행위는 왕권을 찬탈한 이두병을 심판한다는 점에서 대의명분을 실현하여 복수의 정당성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장부의 하울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밖에 하울 일이 또 있는가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울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제1장>

남산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이 그다지도 날랜시고
두어라 우로(雨露)*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A]

<제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B]

<제3장>

설월에 매화를 보러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섬인 꽃 여원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롭다
어즈버 호접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C]

<제6장>

- 이신의, 「단가육장」 -

- * 부근 : 큰 도끼와 작은 도끼를 통틀어 이르는 말.
- * 우로 : 비와 이슬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적객 :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

(나)

백옥 같은 이 내 마음 입 위하여 지켰더니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섞어 치니
해질 녘 대나무에 옷소매 얇고 차구나
난초를 꺾어 쥐고 입 계신 데 바라보니
약수 가려진 곳 구름 길이 험하구나
다 썩은 닭의 얼굴 첫맛도 채 몰라서
㉡초취한 이 얼굴이 입 그려 이리한가
천 층 파도 한가운데 백 척 장대에 올랐더니
뜻밖의 회오리바람 환해* 중에 내리나니
억만 길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겠네
노나라 흐린 숲에 한단이 무슨 죄며
진나라 사람이 취한 잔에 월나라 사람이 무슨 탓인가
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뜰 앞에 심은 난(蘭)이 반이나 시들었구나

(중략)

바람에 부대껴 흑룡강에 떠러진 듯
천지는 끝이 없고 물고기와 기러기도 무정하니
옥 같은 얼굴을 그리다가 말겠구나
매화나 보내고자 역로를 바라보니
처마 위에 뜬 달을 예전에 보던 낮빛인 듯
따뜻한 봄 언제 볼까 눈비를 혼자 맞아
푸른 바다 넓은 곳에 냇조차 흠어지니

㉢나의 긴 소매를 누굴 위하여 적시는고

태상 칠위분이 옥진군자 명이시니
하늘 위 누각에서 피리를 울리시며

㉣지하 복풍에 죽을 운명 벗기실까
죽기도 운명이요 살기도 하늘이니
진체의 횡액을 공자도 못 면하며
죄 없이 잠헌들 군자라도 어이하리
오월 서리가 눈물로 어리는 듯
삼년 가뭄도 원통함에서 일어나도다

- 조위, 「만분가」 -

- * 환해 : 관티의 사회.
- * 옥석 : 옥과 돌이라는 뜻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

(다)

강·회·하·한은 물 중에서 큰 것이다. 사람들이 다 반총·동백·곤륜·민산에서 나오는 것만 알고, 그것이 이 네 산에 달하기 전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대개, 물의 성질은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것이다. 물이 땅 밑에 있을 때는 비록 잠복하여 괴어 있거나 땅 위에 나오게 되면, 유동하기도 하고 가득 차기도 해서, 그 이치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람이 물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둡다. 그러므로 성인은 땅 밑에 물이 있는 형상을 보고 이미 사괘*를 만든 후에 비괘*를 다음에 이었으니, 사람들에게 근원을 미루어 흐르는 데까지를 보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물의 근원을 아는가. 또 축축하게 젖는 것은 물의 남은 기운이다. 그 흐르는 것이 방울방울 끊어지지 않아 줄달아 잇달다가 장강에 통하고, 큰 바다에 달하여는 호호하고 쾌연히 넓고 넓어 활짝 닥치어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은미한 것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이를 살피겠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다 같이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하동에 있을 때에 집 곁에 작은 샘이 있는데, 그 근원이 수풀 속에 파묻혀 나오는 방향을 알지 못하므로, 이웃 사람들이 더러운 흙에서 나오는 것이라 억측하고, 더럽게 여겨 먹지 않으려 했다. 내가 가서 보고 그 근원을 청소하고 그 흐름을 터놓아, 조금 동쪽에다가 벽돌로 우물을 만드니 바로 이웃에 있는 냉정으로 이름난 것과 수맥이 같고 맛이 또 같으니, 한 근원이요 물줄기만 나누어진 것이었다. 이에 부모들이 서로와서 고마워하며 왕래하고 길어 써도 마르지 않으니, 내가 진실로 옛말과 같이 지혜를 써서 물을 흐르게 한 것인가, 또한 흐르는 것을 거슬러 근원을 알아낸 것인가 하였다.

아,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와 비슷함이 있다. 재주가 족히 임금을 착하게 하고, 백성을 윤택하게 할 선비가 있는데, 사람들이 곁에서 비방하면, 물러와서 거칠고 더러움을 참으며 때를 기다리다가 하루아침에 성군과 지기를 만나 천하에 그 도를 행하게 된다면, 또 어찌 이 물과 다르겠는가. 오늘날 윗 사람은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을 취하고, 그 마음의 곡직에는 근본하지 않으니, 또한 물이 흐르는 것만 알고 그 근원은 알지 못함과 같다. “하늘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징험한다.” 하였으니, 지금 물을 논함에 또한 그러하다. 맹자의 말씀에, “물을 보는 데는 방술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라.”라고 하였다. 나는 또 말하기를, “물을 보는 데는 방술이 있으니, 반드시 그 근원에 근본하라.” 하였다.

- 이첨, 「원수(原水)」 -

- * 사괘 : 땅속에 물이 있음을 상징함.
- * 비괘 : 땅 위에 물이 있음을 상징함.

2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삶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 ② (가)는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는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역사적 인물을 호명하며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3. [A] ~ [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맑던 솔’을 사라지게 한 ‘부근’을 통해 ‘우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다.
- ② [B]에서는 ‘뜰 가’에 ‘제비 비비’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을 드러낸다.
- ③ [C]에서는 ‘설월’에 핀 ‘매화’를 통해 ‘호접’에 대한 예찬을 드러낸다.
- ④ [A]에서 드러난 ‘난 후’의 상황은 [B]의 ‘적객의 회포’와 연결되어 세상과의 단절 의지를 드러낸다.
- ⑤ [B]에서 ‘창밖’의 ‘세우’를 보는 상황은 [C]의 ‘창’을 열어 ‘향기’를 맡는 상황으로 연결되어 현실을 회피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2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부각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② ㉡ : 입을 향한 그리움에 수척해진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물음이다.
- ③ ㉢ : 입과 재회하지 못한 화자의 비통한 심정을 부각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④ ㉣ : 절망에서 벗어나겠다는 화자의 결심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⑤ ㉣ : 사람들의 단편적인 시각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한 물음이다.

25.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화·하·한 의 근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제시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물의 성질을 바탕으로 물이 근원에 도달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물이 바다에 이르게 되는 순서를 제시하며 물이 흐르는 방향에 대한 세간의 통념을 바로잡고 있다.
- ④ 하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이 쓰이는 이치에 대해 생각이 바뀔 계기를 밝히고 있다.
- ⑤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와 (다)는 작가가 경험한 부정적인 현실을 자연물과 연관 지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나)는 억울하게 유배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비가 분별되지 않는 현실을 자연물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하며, (다)는 자연물과 관련된 경험과 인간사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근원을 통찰하지 못하는 현실을 설득력 있게 비판한다.

- ① (나)는 ‘백옥 같은’ ‘마음’을 지켰지만 ‘무서리’가 ‘섞어 치고’ ‘억만 길 못에 빠’졌다는 것을 통해 억울하게 유배된 경험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나)는 ‘환해’에 내린 ‘뜻밖의 회오리바람’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자연물과 연관 지어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 ③ (나)는 ‘달’을 보고 ‘예전에 보던 낮빛’을 떠올리는 것을 통해 시비가 분별되지 않는 현실을 자연물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④ (다)는 ‘작은 샘’을 ‘더럽게 여긴 것을 ‘사람’이 ‘버림을 당하’는’ 일과 연관 지은 것을 통해 자연물과 관련된 경험과 인간사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다)는 ‘윗사람’이 ‘마음의 곡직에는 근본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근원을 통찰하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군.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명식의 밤 외출은 날이 갈수록 잦아 갔다. 2층 서재로 숨어들어가 그의 가면 뒤에서 이상스런 휴식에 젖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하여 그는 사무실에서 물어 온 피곤기를 가면 뒤에서 말끔히 씻어낸 다음 지연을 찾아 ㉔ 밤늦은 2층 계단을 내려오곤 했다.

[A] 명식은 분명 그 가면 뒤에서라야 비로소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듯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변신의 연극기 같은 것에서 오는, 그 가면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새삼스럽게 자기를 느끼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어쨌든, 이제 지연이 명식을 속속들이 다 만나는 것은 그가 그 밤 외출에서 이상스런 방법으로 피로를 씻고 새 힘을 얻어 돌아오는 날뿐이었다.

이윽고 지연에게도 한 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명식을 만나고 싶은 밤의 소망은 반드시 그의 가면을 연상시켜 주곤 했다. 지연은 명식의 가면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명식의 가면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명식의 가면이 어느새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어쩌면 썬인지 그녀는 명식의 동기까지를 포함하여 그러는 자신을 스스로 수긍해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명식에게서도 혹시 그런 기미가 엿보이고 있었기 때문일까. ㉕ 지연은 이제 오히려 명식의 맨얼굴 쪽에서 어떤 불편스런 가면이 느껴지고 있을 지경이었다. 그녀에게는 명식이 맨얼굴로 대문을 들어설 때의 표정이야말로 영락없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뻗뻗하고 변화 없고 그리고 어떤 뻗뻗스런 피곤기 같은 것이 온통 그를 가려 버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러나 지연은 그토록 익숙해진 명식의 가면을 아직도 똑똑히 본 일이 없었다.

그 첫날 한 번밖에 명식이 자기의 가면 뒤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을, 그것이 진짜 자기의 얼굴이나 되는 양 익숙해져 버린 가면으로 의기양양 밤 외출에서 돌아오곤 한 명식을 다시 본 일이 없었다.

지연은 보지 않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그 명식의 얼굴을 자신 속에도 깊이 지너 버리고 있었다. 문득문득 그것을 만나고 싶은 밤이 많았다. 이날도 지연은 그런 명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잠시 후 명식이 밤 외출에서 돌아온다.

한참을 기다렸다. 역시 기척이 없다. 이상한 일이었다.

㉖ 오늘 밤에도 또?

지연은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문득 어떤 별난 밤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도 명식은 썬 오랜만의 밤 외출에서 돌아와 소리 없이 2층으로 올라간 다음이었다. 지연은 물론 그녀의 침대 속에서 명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계단을 내려오는 기척이 없었다. 지연은 불쑥 상서롭지 못한 예감이 들었다. 술이 너무 지나쳤나 싶기도 했고, 그런 일이 워낙 처음이라 다른 심상찮은 변고가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했다. 그녀는 기다리다 못해 결국 자기가 먼저 침대를 내려오고 말았다. 여자가 먼저 남편을 찾는 것처럼 보이가 여간 쑥스

럽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녀는 명식을 살피고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루에서 잠깐 발길을 망설이던 그녀는 ㉗ 가만가만 2층 계단을 올라갔다.

㉘ 지연이 명식의 방문 앞까지 다가갔을 때 방안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판판이었다.

“좀 들어오지그래.”

기다리고 있거나 했었던 듯 문을 열기도 전에 명식의 소리가 먼저 흘러나왔다. 술이 취해 있기는커녕 너무도 정연하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지연은 쑥스러움도 있고 끌리듯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명식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 근처의 어둠 속에 조용히 파묻혀 있었다.

“앉지 않구.”

어둠 속이라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왔다.

“오늘 밤은 여기서 좀 이렇게 지내다 가.”

어떤 분명한 의미가 담긴 말이었다. 지연은 감히 명식의 걸음으로는 갈 수가 없었다. 공연히 그가 두려웠다. 변장을 하고 있을 그의 얼굴을 만나 버리기가 두려웠다. 그녀는 명식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등 없는 등글의자 위로 몸을 주저앉혔다. 그러나 지연은 그러고 앉아서도 명식의 어떤 분명한 얼굴을 보고 있었다.

[B] 명식은 아직 변장을 풀지 않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가 너무 잔잔했다. 어딘가 한숨 같은 것이 묻어 있는 잔잔한 음성이었다.

지연은 명식의 그 음성으로 그가 지금 자기는 보지도 않고 창밖으로 시선을 내보낸 채, 그녀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깊은 갈망에 젖고 있다는 것을 어슴푸레 느낄 수 있었다.

- 이렇게 불을 끄고 앉아 있으니 밤이 좋군. ㉙ 대낮은 얼굴이 너무 따가워서…… 누구나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 사람들이 얼굴 가득히 그 엄청난 대낮의 햇빛을 스스로없이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잘 단련이 되고 있는 건 다행한 일이지.

- 하지만 그건 다행스럽다고만은 할 수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가면을 든든하게 단련시켜 가고 있거든.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

- 가면이 우는 걸 보았을까.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가면의 눈물은 속으로만 흐르게 마련이거든.

명식은 역시 취기가 좀 숨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떠껍떠껍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앞뒤가 닿는 소리만 추려 보면 대강 그런 식이었다. ㉚ 지연이 보아 온 대로였다. 대낮을 다니는 맨얼굴에서 가면을 느끼는 대신, 가발과 콧수염으로 변장을 하고 있는 당장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기미였다. 그리고, 그래서 명식은 그러한 변장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고뇌를 가장 정직하게 안을 수 있는 듯한 태도였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앉아서 어둠에 싸인 명식의 희미한 모습만 더듬고 있었다. 그러다가 방을 나오고 말았다.

- 이청준, 「가면의 꿈」

27.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인물 자신이 보고 들은 사건을 주관적 시각에서 직접적으로 서술한다.
- ② [A]는 인물의 독백적 발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생생하게 제시한다.
- ③ [B]는 사건을 작중 상황 안에서 목격하는 인물과 그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서로 다르다.
- ④ [B]는 작중 상황 안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추측하여 전달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
- ⑤ [B]는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작중 상황 밖에서 전달하다가 작중 상황 안으로 이동하여 전달한다.

28.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귀가할 때 다른 가면을 지어내는 '명식'에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
- ② ㉡: 가면을 쓴 '명식'과의 대화가 누차 반복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명식'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타인들의 시선 때문에 낮에도 변장을 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명식'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연'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9. ㉠과 ㉡에 제시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아래층 인물이 위층 인물을 전과 달리 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 ② ㉠은 위층 인물이 자신의 가면을 보여 주기 위하여 하는 행위이다.
- ③ ㉠은 위층 인물이 일상의 고단함을 탈피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이다.
- ④ ㉡은 아래층 인물의 내적 욕망과 행동의 괴리가 일어나게 한다.
- ⑤ ㉡은 아래층 인물이 부부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소설 속 인물의 변신 모티프는 그가 겪는 갈등의 크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깊은 소망을 내보이는 방편일 뿐, 소망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변신은 갈등의 일시적 해소 효과가 없지 않지만, 가짜 해결의 속임수이고 상상적 희망의 기호에 불과하다. 결국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참된 자아의 진실을 근거로 하여 그것에 맞서는 것뿐이다.

- 작가의 말 중에서

- ① '지연'이 '명식'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의자에 앉은 것은 '명식'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 ② '명식'의 밤 외출이 잦아지는 것은 현실 세계와의 불화로 인하여 갈등이 고조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다.
- ③ '명식'이 가면의 눈물은 속으로만 흐른다고 말한 것은 참된 자아를 숨긴 채 살아가는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이다.
- ④ '명식'의 가면을 똑똑히 보지 않고도 그를 기다리는 '지연'의 행위는 '명식'의 상상적 희망을 자기화한 것이다.
- ⑤ '명식'이 가면을 쓴 자신에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그가 일시적 속임수에 도취되었음을 의미한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門)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마을이 온통
해바라기 꽃밭이었다. 그 흰출한 줄기마다
땃방석만한 꽃송어리가 돌고

해바라기 ㉠술 속에선 갑자기
수천 마리의 낮닭이
깃을 치며 울었다.

파이란 바다가 보이는
산모퉁이길로
꽃상여가 하나
조용히 흔들리며 가고 있었다.

바다 위엔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었다.
오색(五色) 비단으로 돛폭을 달고
뱃머리에는 큰 북이 달려 있었다.

수염 흰 노인이 한 분
그 뱃전에 기대어
피리를 불었다.

꽃상여는 작은 배에 실렸다.
그 배가 떠나자
바다 위에는 갑자기 어둠이 오고
별빛만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 조지훈, 「꿈 이야기」 -

(나)

누이여
또다시 은비늘 더미를 일으켜세우며
시간이 빠르게 이동하였다
어느 날의 잔잔한 어둠이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기억을 향하여 봄이 왔다

살아 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네가 가져간 시간과 버리고 간
시간들의 얽힌 영토 속에서

한 뼉의 폭풍도 없이 나는 고요했다
다만 햇덩이 이글거리는 ㉡별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어김없이 시간은 솟구치며 떨어져
이슬 턴 풀잎새로 엉경귀 바늘을
살라주었다

봄은 살아 있지 않은 것은 묻지 않는다
떠다니는 내 기억의 얼음장마다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다
잠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라
아아,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
나리 나리 개나리
네가 두드릴 곳 하나 없는 거리
봄은 또다시 접했던 꽃술을 펴고
찬물로 눈을 행구며 유령처럼 나는 꽃을 꺾는다
- 기형도, 「나리 나리 개나리」 -

3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행의 반복을 통해, (나)는 물음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대화체의 형식을 통해, (나)는 대조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나)는 외부 세계에서 내면으로 화자의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깨달은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32.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누이의 ‘생애’가 꺾였다는 것은 누이가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살아 있는 나’가 ‘세월을 모른다’고 한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에 아파하며 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기억의 얼음장마다’ ‘뜨거운 안개’가 ‘부르지 않아도’ 쌓인다는 것은 누이에 대한 기억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④ ‘봄’이 되자 ‘또다시’ ‘꽃술’이 펴진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관계없이 다시 찾아온 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유령처럼’ ‘꽃을 꺾는다’는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3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련에 맞서는 공간이고, ㉡은 희망을 상실한 공간이다.
 - ② ㉠은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바라보는 공간이다.
 - ③ ㉠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고통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④ ㉠은 화자의 기대가 반영된 공간이고, ㉡은 화자의 심리와 대조되는 공간이다.
 - ⑤ ㉠은 미래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과거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죽음은 실체적 아픔의 원인이자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삶과 맞닿아 있는 삶의 연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가)는 ‘문’을 통해 꿈속 세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것이 꿈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문’ 밖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중심으로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며 그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에서 화자가 ‘문’을 경계로 하여 꿈으로 들어가고 꿈에서 나오면서도 ‘문’을 ‘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꽃상여’가 마을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 산모퉁이길’을 거쳐 바다로 가므로 ‘산모퉁이길’은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배’가 떠나자 ‘별빛’이 쏟아져 ‘어둠’을 밝히는 장면은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은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누이에 대한 ‘투명한 /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자에게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봄’이 다시 오는 것은 화자가 아픔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화자가 ‘하나의 작은 죽음’이 ‘큰 죽음들을 거느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이의 죽음이 슬픔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